

[ 기획 ]

###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마지막 도전... '남극 빈슨 매시프 원정대' 김홍빈 대장



1997 유럽 엘브루즈(5,642m)



1997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895m)



1998 남미 아콩카구아(6,959m)



1998 북미 맥킨리(6,194m)



2007 아시아 에베레스트(8,848m)



2007 호주 코지어스코(2,228m)



## “실의에 잠긴 이들에 희망 메시지”

### ■ 왜 남극 빈슨 매시프인가

지난 1991년 김홍빈 대장은 북미 대륙 최고봉 맥킨리로 향한다. 첫 히말라야 원정이었다던 동계 에베레스트(8,848m)와 이듬해 남가파르밧(8,125m) 등반으로 자신감을 얻은 20대 후반의 젊고 패기 넘치는 산악인의 가슴속에는 어느새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향한 열망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해 가을에는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하는 '시사광마(8,027m)·초오유(8,201m) 연속 등정'에 참여하고 남가파르밧도 재도전할 작정이었다. 맥킨리행은 그 전초전이었다.

8,000m급 거봉들을 오르려면 장비와 식량은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고, 등반 기술은 더욱 다듬어야 했다. 김 대장은 맥킨리에서 이를 시험해보려고 하고 단독 등반을 감행했다. 이른바 알파인 스타일이다. 식량은 쌀과 김치, 부식들을 빼고 간편한 단팥죽과 간식류 위주로 준비했다. 그 것이 화근이었을까. 데날리 페이스 마지막 캠프(5,700m)에서 두 차례 정상 공격 후 재도전을 위해 하루 더 머물던 중 고소증세와 탈진이 겹치면서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국립공원 구조원들에게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동상에 걸려 새끼말개 말라버린 양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잘라내야 했던 것이다. 손등까지 문드러져 두 달 동안 7차례의 수술 끝에 손목 부위에 철

11일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을 위해 출국하는 '2008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 원정대' 김홍빈 대장. 이번 등정에 성공하면 양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르는 대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내량주기자 mjna@kwangju.co.kr

심을 박아 지금의 뚱뚱한 손이 만들어졌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알래스카의 병상에서 수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도 그는 결코 산을 원망하지 않았다. “산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다친 거죠. 이전 고산 등반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얻게 된 것도 모두가 산 덕분입니다”

수술 직후엔 속옷을 혼자 갈아입거나 방문을 열거조차 힘들었다. 보혈관매원과 골프장 중장비 운전사, 건설회사, 스포츠센터 직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던 그는 결국 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손 대신 다리의 힘을 기르려 피나는 노력을 쏟았다. 시내버스를 타면 좌석에 앉지도 않았다. 발 앞부터로만 걸거나 발로만 몸을 유지하는 연습을 거듭했다. 아이젠을 차고 설벽을 오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1자 걸음도 생활화했다.

### 삶의 의지 얻게된 것도 산 덕분

선후배 산악인들의 격려와 배려로 암벽·빙벽·설상 훈련을 거듭하며 자신감을 회복한 그는 사고 후 6년여 만에 일본 다테야마(3,015m)로 해외 원정을 떠나 체력과 등반력을 점검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한 시험등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그는 1997년 유럽 엘브루즈(5,642m)를 시작으로 각 대륙의 최고봉을 하나씩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5대륙 최고봉이 목표였지만 내친 김에 7대륙까지 해보자는 오기가 생겼다. 꾸준한 운동 덕분에 체력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이번 남극 대륙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 등반은 그에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열 손가락을 모두 산에 바친 이후 17년만에, 7대륙 최고봉 등반을 시작한 지 12년만에 스스로 세운 목표 가운데 하나를 매듭짓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등정에 성공하면 그는 양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정상에 모두 오르는 대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세븐 서미트(Seven Summits·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지는 국내에서도 허영호, 박영석, 오은선, 김영미 씨 등 4명 뿐이다. 더욱이 역경을 타고 일어난 김 대장의 7대륙 최고봉 완등은 세계 산악계의 쾌거이자, 장애인은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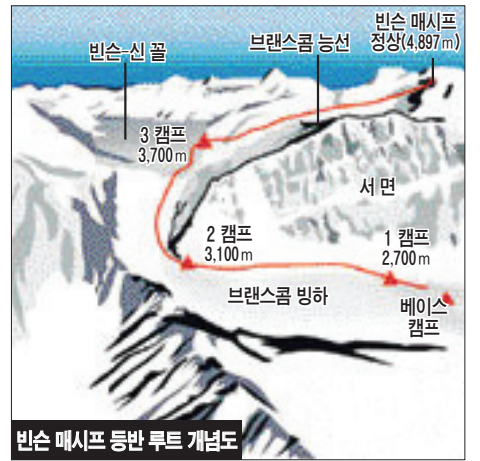
### 포기 안하면 꿈은 반드시 이뤄져

7대륙 최고봉 완등은 또한 그의 다음 도전 대상인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위한 디딤돌이기도 하다. 그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가셔브롬 II(8,035m)와 시사광마 남벽(8,027m), 에베레스트(8,848m), 마칼루(8,463m) 등 8,000m급 4개 봉을 잇따라 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10개 봉. 내년에는 K2(8,611m)와 안나푸르나(8,091m), 다울라기리(8,167m)에 도전할 예정이다. 극한의 지대에 도사린 수많은 난관을 초인적인 의지로 극복하고 거봉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이 없는 그에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도 여전히 어렵다. 지퍼를 혼자 잠그지 못하거나 신발끈을 묶지 못하는 게 단적인 예. 텐트를 칠 때, 취사를 할 때도 김 대장 혼자서는 아무래도 무리다. “용변을 볼 때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등산화관을 묶지 못하니 출발부터가 어렵죠”

돌아보면 8,000m급 거봉이나 6대륙 최고봉을 넘어서기까지는 지역 산악계 선후배들의 도움이 컸다. 원정을 꾸릴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선배들, 등반을 함께 하며 기꺼이 그의 손이 되어주고 장비를 손가락 없는 손에 꼭 맞게 개조해준 동료와 후배도 있었다.

김 대장은 “등반이 힘들어 뒤를 돌아보게 될 때면 그동안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낸다”고 밝혔다. 7대륙 최고봉 완등은 이처럼 그를 격려하고 도와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이번 원정을 통해 그는 “잃어버린 손가락”을 되찾게 될 것이다. ‘조금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것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 빈슨 매시프는

## 남극 센티널산맥 4,897m 최고봉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는 남극 대륙의 서쪽 엘스워드(Ellsworth) 산군의 센티널(Sentinel) 산맥에 속해 있는 남극 최고봉이다. 센티널 산맥은 1935년 미국의 백만장자 탐험가였던 링컨 엘스워드(Lincoln Ellsworth)에 의해 처음 발견됐고 너비 90km, 길이는 355km에 이른다.

빈슨 매시프는 1935~1961년 남극 조사 및 탐험의 강력한 후원자였고, 당시 미국 군사위원회 의장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칼 빈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연봉’이라는 의미의 매시프는 정상에 3개의 봉우리로 이뤄졌다 하여 붙여졌다.

1966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후원 아래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와 아메리칸 알파인 클럽 합동 등반대가 처음 정상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1985년 11월 29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파견한 한국남극관측탐험대(대장 홍석하)의 허욱, 허정식, 이찬영 대원이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등정에 성공했다.

등반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가장 추운 대륙에 있는 만큼 다른 지역과 다른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블리자드(blizzard·폭풍설 또는 강한 눈보라)와 연 평균 영하 50도에 달하는 낮은 기온. 하루 20시간이 넘는 백야 현상은 등반팀의 휴식에 방해가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한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냅니다.  
국제약품은 오늘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ookje.com/ko/kr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콜레스테롤, 인산·구리, 셀레늄·비타민 E, 노년기  
- 동맥 경화증 예방, 미연령  
- 당뇨, 고지혈증 예방, 체중 조절, 비만 예방, 노년기  
- 암 예방, 비뇨기 질환 예방, 면역력 증진, 노년기  
- 암 예방, 비뇨기 질환 예방, 면역력 증진, 노년기  
- 암 예방, 비뇨기 질환 예방, 면역력 증진, 노년기

**아연의 보급**  
- 아연은 면역력 증진, 노년기